

# 상부하고 개가하는 여성들의 서사

## -〈변강쇠가〉와 〈덴동어미화전가〉를 중심으로

전기화

서울대학교 강사

목차

- 1 들어가며
- 2 옹녀와 덴동어미 서사의 양상
- 3 텍스트의 결말과 미적 특질
- 4 나가며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섬세하게 살펴주시고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조언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변강쇠가〉와 〈덴동어미화전가〉는 여성의 거듭된 상부(喪夫)와 개가(改嫁)의 서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함께 논의되어왔다. 본고는 옹녀와 덴동어미의 서사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각 인물의 성격 문제로 환원하거나 그 차이의 우열을 나누는 시각을 지양하고, 두 여성인물의 서사를 다각적으로 살피며 비교 연구의 시각을 심화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배치되는 텍스트의 전체 구성을 살펴볼 경우, 〈변강쇠가〉가 이전에도 반복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반복될 옹녀의 개가와 상부의 서사 가운데 강쇠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떼어내어 조명한다면,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놀이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덴동어미가 해결한다는 맥락 안에 덴동어미의 상부와 개가의 서사를 배치하고 있다. 한편 〈변강쇠가〉의 경우 결말에서 옹녀를 외파로 남겨둔 채 그 행방을 묘연하게 처리하는데, 이는 서술자의 논평으로조차 충분히 봉합되지 않는 불편감을 가중시킨다. 이에 반해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놀이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가 덴동어미의 발화를 통해 해결됨을 드러냄으로써,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동체 전체의 흥겨움을 고조시키며 마무리된다. 미결의 감각을 남기는 〈변강쇠가〉와 만족스러운 종결의 감각을 남기는 〈덴동어미화전가〉의 차이는, 어떠한 공동체에도 포용되지 못하는 옹녀와 고향의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는 덴동어미가 처한 조건 간의 차이와도 연관된다. 이로써 〈변강쇠가〉와 〈덴동어미화전가〉는 공동체의 구성적 성격을 각기 다른 각도로 사유하게끔 추동한다. 공동체의 안과 밖, 그 경계의 폐쇄성과 유동성 사이를 오가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는 함께 읽을 때 그 의미망이 보다 확장되는바, 이는 곧 비교 연구의 새로운 의의라고도 볼 수 있다.

국문핵심어: 변강쇠가, 덴동어미화전가, 옹녀, 덴동어미, 상부, 개가, 공동체, 결말

## 1 들어가며

본고는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와 서사가사 〈덴동어미화전가〉에 상부(喪夫)와

개가(改嫁)를 거듭하는 여성인물의 삶이 상이하게 형상화된다는 데 주목한다. 기왕에 조선후기 하층 여성의 전형으로 평가되어온 이들 여성인물의 인생유전(人生流轉)이 각 텍스트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두 여성인물의 서사가 전체 텍스트 안에서 각기 어떻게 배치되며 의미화되고 있는지 등에 주목하여 두 텍스트를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변강쇠가> 연구의 흐름은 작품의 특이한 미적 특질을 ‘음란성’, ‘기괴미’ 등으로 규명하는 가운데, 주요 갈등을 파악하고 그 갈등이 현실의 무엇을 유비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이를 조선후기 사회사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방식으로 심화되어왔다.<sup>1</sup> 이 과정에서 <변강쇠가>를 19세기 조선의 전염병 체험과 연관지어 읽는 시각이 제출되었던바,<sup>2</sup> 근래 <변강쇠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과 더불어 전염병의 기억을 담아낸 고전으로서 활발히 재조명되고 있기도 하다.<sup>3</sup>

한편 <텐동어미화전가>는 텐동어미의 삶을 그 사회적 조건과 관련지어 해

- 
- 1 대표적으로 강진옥, 「<변강쇠가>연구 2-여성인물의 ‘쫓겨남’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13호, 이화어문학회, 1993; 김종철, 「<변강쇠가>와 기괴미」,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6; 정출현, 「판소리에 나타난 하층 여성의 삶과 그 문학적 형상-〈변강쇠가〉의 여주인공 ‘옹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9호, 한국어비문학회, 1999; 정천구, 「<변강쇠가〉의 갈등 양상과 의미 재해석」, 『語文學』 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적 이미지와 그 사회적 함의」, 『판소리연구』 제16호, 판소리학회, 2003; 최동현, 「문화적 갈등으로 본 『변강쇠가』」, 『국어문학』 제61호, 국어문학회, 2016; 서유석, 「공포와 혐오, 현대의 가능성으로 읽어보는 유랑민 서사」, 『우리문학연구』 제60호, 우리문학회, 2018; 신호림, 「<변강쇠가〉에 나타난 욕망과 규범의 긴장과 그 처리 방식」, 『판소리연구』 제45호, 판소리학회, 2018.
  - 2 신동원, 「변강쇠가로 읽는 성·병·주검의 문화사」, 『역사비평』 제67호, 역사비평사, 2004;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강쇠 형상과 그에 대한 적대의 의미」, 『어문논집』 제58호, 민족어문학회, 2008; 이주영, 「‘기괴하고 낯선 몸’으로 <변강쇠가〉 읽기」, 『고전과 해석』 제6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 3 대표적으로 오성준,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질병에 대한 기억과 반응: 19세기 콜레라의 유행과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43호, 국문학회, 2021; 이종필, 「조선의 포스트 콜레라와 <변강쇠가〉」, 『어문학』 제154호, 한국어문학회, 2021; 신호림, 「공동체와 폭력: 코로나 시대 <변강쇠가〉 읽기」, 『판소리연구』 제53호, 판소리학회, 2022; 이주영, 「조선후기 문학의 역병(疫病) 재난과 대응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77호, 열상고전연구회, 2022.

석하는 데에서부터 주요한 연구가 시작되었다.<sup>4</sup> 초기에는 덴동어미를 조선후기의 ‘하층민’으로서 부각시키는 관점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여성문학적 특징에 주목한 연구의 시각이 정립되었으며,<sup>5</sup>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을 상세히 살피는 논의들이 축적되며 그 이해를 심화해왔다.<sup>6</sup> 특히 <덴동어미화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층위의 여성연대를 읽어내며, 연대·치유·친밀성 등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시도들이 연구의 주요 흐름을 이루었다.<sup>7</sup>

<변강쇠가>와 <덴동어미화전기>에 관한 본격 비교를 내세운 연구는 부재하나, 기왕의 연구사에서 두 작품은 여러 차례 함께 논의되어왔다.<sup>8</sup> 초기 연구들은

- 
- 4 정홍모, 「<덴동어미 화전기>의 세계인식과 조선후기 몰락 하층민의 한 양상」, 『어문논집』 제30호, 민족어문학회, 1991; 김종철, 「운명의 얼굴과 신명 <된동어미 화전기>」,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 5 박혜숙,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기>」, 『인제논총』 제9호, 인제대학교, 1992.
  - 6 대표적으로 고희경, 「“덴동어미 화전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5호, 한국언어문학회, 1995; 박경주, 「화전가의 의사소통 방식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0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정무룡, 「<덴동어미 화전기>의 형상화 방식과 함의」, 『한민족어문학』 제52호, 한민족어문학회, 2008; 서주연, 「<덴동어미화전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의미」, 『도시인문학연구』 제5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3. 관련하여 연구사를 정리한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최은숙, 「<덴동어미화전기>의 연구성과 및 현대적 의미」, 『국학연구론총』 제18호, 태민국학연구원, 2016.
  - 7 대표적으로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제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박성지, 「<덴동어미화전기>에 나타난 욕망의 시간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김은희,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기>-치유의 과정에 주목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9호,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박상영, 「<덴동어미화전기>의 중층적 담론 특성에 관한 一考」, 『한민족어문학』 제76호, 한민족어문학회, 2017; 박정애, 「스토리텔링 치료의 관점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기>와 그 현대적 수용 사례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8; 서철원, 「온전하지 못한 몸과 마주보기: <도천수관음가>와 <처용가>의 질병, <노처녀가>의 장애, <덴동어미화전기>의 사고」, 『국문학연구』 제43호, 국문학회, 2021; 고정희, 「‘더 늙은 여성’의 치유-<덴동어미화전기>와 브루스터플레이스의 여자들의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4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2.
  - 8 김종철, 앞의 글, 1992, 766-767쪽; 정출현, 앞의 글, 191-203쪽; 박경주,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19세기 하층 여성의 실상과 의미: <변강쇠가> <미얄과장> <된동어미화전기>

이들 텍스트가 조선후기 하층 여성의 현실과 그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비교 연구의 방법론을 정립했다. 반영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던 이들 연구는, <변강쇠가>와 <텐동어미화전가> 외에도 유사한 서사가 나타나는 <장끼전>이나 <미얄과장> 등 여타의 텍스트까지 아우르며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접근 방식이 유사하며, 옹녀를 ‘반윤리적’이면서 ‘비극적’인 여성상으로, 텐동어미를 ‘독립적’이며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평가하는 등 두 인물에 관한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의견을 공유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 이후, 두 텍스트를 조선후기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의 차원에서 살피며 다소 다른 각도에서 맥락화하는 논의가 제출되기도 하였다.<sup>9</sup> 이 연구의 경우 텐동어미를 가부장제의 수호자로 평가하며 변강쇠와 비견하는 등 기존의 긍정적 평가를 뒤집었다는 점이 주목되지만, 여러 작품들을 일괄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각 작품 간의 차이가 섬세하게 변별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변강쇠가>와 <텐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나는 여성인물 간의 유사성이 주목되는 한편으로, 두 여성인물들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평가가 제출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 여성인물이 하층 여성 일반의 ‘대변자’ 혹은 ‘전형’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두 인물 간의 차이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체로 성격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그 차이를 위계화하여 평가하는 시각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교의 방법론을 경유함으로써 각 대상의 특징이 보다 정치하게 변별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비교란 일반화로 나아가거나 우열을 나누는 등의 두 가지 방향 외에도 다각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는 연구 방법이라 생각된다.<sup>10</sup>

---

의 비교를 통해」, 『국어교육』 제104호, 한국어교육학회, 2001.

9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제36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10 <변강쇠가>와 <텐동어미화전가>는 각기 판소리 사설과 서사가사로 그 장르가 상이하나 서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비교의 근거는 충분한바, 이는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바이기도 하다. 한편 텍스트의 장르 규정이란 상대적 비중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뿐 현실태의 텍스트에는 여러 장르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볼 때 비교 연구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부기해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되, <변강쇠가>와 <덴동어미화전가> 속 여성인물 옹녀와 덴동어미의 서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재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여성인물이 공유하는 거듭된 상부와 개가의 서사에 주목하면서도, 기존에 비교론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지점들, 이를테면 상부와 개가의 서사가 전체 텍스트에서 배치되는 방식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효과, 그 서사를 다루는 시각 및 형상화 방식, 결말의 처리 방식과 그 미적 특질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간 진행되어온 옹녀와 덴동어미에 관한 비교 연구의 시각을 계승하고 심화하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 목표이다.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변강쇠가>와 <덴동어미화전가> 각각의 이해를 심화하고, 공동체의 경계에 관한 문학적 재현을 사유할 수 있는 유의미한 거점으로서 두 텍스트를 재위치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sup>11</sup>

## 2 옹녀와 덴동어미 서사의 양상

<변강쇠가>와 <덴동어미화전가>에는 여성인물이 거듭 사별(死別)을 겪으며 새로운 남성과 인연을 맺어가는 서사가 나타난다. 조선후기의 열녀담론과 위배되는 듯 보이는 거듭된 개가란 실상 하층 여성들의 생존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서사는 조선후기 하층 여성의 특수한 처지를 대변하며 현실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논의되어왔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처럼 상부하고 개가하는 여성인물의 서사가 텍스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옹녀와 덴동어미의 서사는 텍스트 전체의 구조와 그 특징을 고려하면서 분석될 필요가 있는바, 2장에서는 <변강쇠가>와 <덴동어미화전가>의 전체 구성을 살피면서 두 여성인물의 서사가 전체 텍스트 안에 배치되는 양상 및 그것이 서술되는 방식 등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11 이하 본문에서 작품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강한영 교주의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星斗本 B)>([『신재효 판소리 사설집(全)』 권8, 보성문화사, 1978) 및 박혜숙의 <주해(註解) 덴동어미화전가>([『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에서 인용한다.

## 2.1 용녀의 서사

〈변강쇠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용녀로, 초반부에는 그녀의 인생유전이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술자는 용녀의 요염하고 아리따운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를 동원하여 묘사한 뒤, 그녀의 사주에 ‘청상살(靑裳煞)이 겹겹이 쌓인 고로’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게 단콩 주워 먹듯”<sup>12</sup> 상부를 반복하고 있다 말한다. 이어서는 용녀의 상부 경험이 간명하게 요약되는바, 그녀가 열다섯에 혼인한 첫 번째 남편은 급상한(急傷寒)으로, 열여섯에 얻은 두 번째 남편은 당창(唐瘡)으로, 열일곱에 얻은 남편은 용천병으로, 열여덟에 얻은 남편은 벼락에 맞아서, 열아홉에 얻은 남편은 큰 도둑이었기에 포청에서 목이 잘려서, 스무살에 얻은 남편은 독약을 먹고 죽은 것으로 제시된다. 즉, 일 년마다 한 번씩 각기 다른 사인(死因)으로 남편들이 죽었던 까닭에, 그녀는 스무 살에 이미 여섯 번의 상부를 경험한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듯 이러한 남편들의 죽음에는 용녀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용녀의 청상살이 까닭으로 전제됨에 따라 이후에 서술되는 직접적 사인들은 부차적인 것인 양 인식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녀로 인해 죽은 남성들은 여섯 명의 남편에 그치지 않는다. “間夫, 愛夫, 거드모리, 새호루기, 입 한 번 맞춘 놈, 젓 한 번 권 놈, 눈흘레한 놈, 손 만져 본 놈, 甚至於 치마귀에 상척자락 얼른 한 놈까지”<sup>13</sup> 그녀와 접촉한 이들의 죽음이 연이어 나열되며, 급기야는 그녀가 사는 마을 안팎에 열다섯 넘은 총각은 모두 죽어버린 상황이라고 서술된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못 남성들의 죽음의 책임을 용녀에게 돌리게 되는데, 앞선 여섯 남편들의 죽음에 관한 서술과는 달리 해당 대목에 이르러서는 ‘용녀와의 접촉’만이 그 죽음의 원인으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편들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사인 또한 별도로 있었으리라 가정할 수는 있으나, 텍스트에 그러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텍스트의 초점은 그 죽음의 책임을 용녀에게 돌려 용녀가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쫓

12 〈변강쇠가〉, 533쪽.

13 〈변강쇠가〉, 533쪽.

겨나 삼남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 흐름을 개연적인 양 제시하며, 공동체가 한 인물을 추방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 보이게끔 만드는 데 있다.

마을에서 쫓겨나 삼남(三南) 지방으로 내려가던 옹녀는, 삼남 지방에서 쫓겨나 양서(兩西) 지방으로 올라오던 변강쇠와 청석골에서 만나게 된다. 이 지점 이후로 강쇠와 옹녀 부부의 서사가 이어짐으로써 옹녀의 거둬들인 개가는 중단된다. 두 인물은 만난 당일 행례(行禮)하고 함께 도방(道傍)에서의 삶을 이어가지만 옹녀가 온갖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강쇠가 계속 탕진하자, 옹녀의 설득 하에 두 사람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한다. 지리산에서조차 무위도식의 삶을 이어가던 강쇠는 옹녀의 부탁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고, 장승을 뽑아들고 온 탓에 장승동티로 사망하게 된다. 옹녀와 강쇠의 만남 이후 강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서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옹녀가 어떻게 해서든 강쇠와의 살림을 이어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강쇠의 죽음이 옹녀의 탓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쇠가 온갖 병에 걸려 죽는 것은 명백히 팔도 장승들에 의한 징치의 결과로 그려지고 있기에, 옹녀의 청상살이라는 문제는 약화된다. 특히 옹녀가 강쇠에게 장승을 다시 돌려두고 오라며 채근하는 장면, 장승들 간의 회의에서 대방장승이 “계집은 말렸으니 罪를 아니 줄 터이오”<sup>14</sup>라고 하며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대목 등으로 인해 강쇠의 죽음의 책임을 옹녀에게 귀속시키는 어려워진다.

이때 장승들의 저주로 죽을 지경에 이른 강쇠는 혼자 남겨질 옹녀를 향한 애정과 연민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의 입관을 손수 하고 삼년상을 지낸 뒤 자살할 것을 옹녀에게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옹녀와 접촉하는 이들이 급살할 것이라는 저주까지 남기며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옹녀는 강쇠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남성들을 찾아 나선다. 강쇠의 시체가 시충출호(屍蟲出戶)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치상이 필요한데 친척이나 이웃마저 없는 곳에서 그녀 홀로 치상(治喪)할 길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남성들을 찾아 나서는 까닭을 밝히는 옹녀의 발화를 통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텍스트 내적으로 마련된

---

14 <변강쇠가>, 557쪽.



다. 그리하여 옹녀는 길을 지나다니는 남성들에게 대가성 성관계를 암시하며 도움을 청하지만, 강쇠의 시체를 치상하려던 이들은 연이어 죽음을 맞이한다. 서사의 초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쇄적 죽음이 제시되지만, 이때의 죽음은 강쇠의 저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초반부의 죽음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그들이 옹녀에게 성적으로 이끌린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강쇠의 저주로 인한 것으로 그려짐으로써, 이제 문제는 옹녀의 청상살이 아닌 강쇠의 원한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후 서사에서는 강쇠의 시체와 더불어 강쇠의 저주로 죽은 이들의 시체들까지, 총 여덟 구의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서 설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시체들의 처리 과정에서 옹녀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며, 사실상의 문제 해결 주체는 서울에서 경상도로 향하다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뎃득이로 설정된다는 점이다.<sup>15</sup> 이를테면 시체를 옮기던 중 잠시 쉬던 짐꾼들이 시체들과 땅과 붙어 떨어지지 않자, 옹녀는 강쇠의 시체에게 빌며 애걸하지만 시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뎃득이가 시체들의 원한을 달래주어 다른 짐꾼들의 등에서 시체를 떼어내고, 끝내 자신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는 강쇠와 초라니의 시체는 동강내고 갈아버린다.

이렇듯 뎃득이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가는 가운데 옹녀의 존재감은 점차 희미해진다. 특히 뎃득이가 강쇠의 시체를 떼어내기 위하여 강쇠를 헐기 있는 남자로 추켜세우며 그 원혼을 달래는 과정에서는 문제적 상황이 강쇠와 옹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꽃 같은 저 美人과 百年

---

15 기왕에 김창현의 연구에서 뎃득이가 담당하는 역할이 다각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근래에는 뎃득이와 옹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를 ‘타자들의 연대’, ‘공감과 연대의 맹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명하기도 한다. 김창현, 「〈변강쇠가〉, 뎃득이의 인물형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제38호, 국제어문학회, 2006; 홍해월·이명현, 「〈변강쇠가〉와 웹툰 〈마녀〉에 나타난 공동체(共同體)와 타자(他者)」, 『우리문학연구』 제54호, 우리문학회, 2017; 김지혜, 「〈변강쇠가〉 속 하층 여성에 대한 낙인의 폭력성과 저항의 가능성 읽기-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67호, 겨레어문학회, 2021. 그러나 뎃득이의 같이질 사설 내용과 더불어, 해당 장면 이후에 덧붙는 오입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 등을 고려하면 뎃득이와 옹녀의 관계를 연대로 의미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을 살겠더니, 이슬 같은 이 목숨이 一朝에 돌아가니, 冤痛하고 憤한 마음 눈을 감을 수가 없어”<sup>16</sup> 한을 품게 되었다며 원혼을 달래는 텃득이의 발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주목된다. 첫째, 이를 통해 강쇠의 ‘원통한 죽음’이 장승들의 응징의 결과라는 맥락이 약화되며 장승을 베어버린 강쇠의 책임이 교묘하게 흐려진다는 점에서, 둘째, 옹녀가 강쇠의 시체를 치상하기 위하여 다른 남성들과 접촉한 것이 문제의 근원인 양 설정된다는 점에서, 셋째, 이로 인해 옹녀가 강쇠의 사랑과 저주가 깃든 불가촉의 존재로 위치되며 그녀가 누구와도 관계 맺지 못하고 홀로 남겨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인 양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변강쇠가〉의 결말에 이르러 텃득이는 등에 붙어 있던 시체들을 갈아버린 뒤 옹녀에게 “풍류남자 가리어서 백년해로 하게 하오. 나는 고향 돌아가서 동아부자 지낼테요.”<sup>17</sup>라며 인사를 남기고 떠난다. 그리고 이러한 텃득이의 선택에 대해 서술자는 개과천선이라고 논평하며, 이 사실을 다 들었다면 여색을 조심하라는 징계(懲戒)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텍스트를 끝맺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강쇠의 시체가 자연스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러뜨리고 으깨는 등 물리적인 방식으로 겨우 처리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원한의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미진함을 남긴다. 이때 옹녀는 텃득이의 발화 상대로서 비가시적으로 텍스트에 흔적을 남길 뿐이기에, 옹녀의 행방 역시 불확실하게 남겨진다. 치상에 동원된 다양한 인물들이 모두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옹녀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변강쇠가〉의 결말은 미완의 감각을 남긴다.

## 2.2 덴동어미의 서사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가의 순차단락 중 유흥 단락 안에 덴동어미의 인생유전 서사가 포함된 형태를 지닌다.<sup>18</sup> 이는 곧 거듭된 상부와 개가를 포함하는 덴동어

16 〈변강쇠가〉, 617쪽.

17 〈변강쇠가〉, 619쪽.

18 양태순, 「규방가사 여성성으로서의 ‘한탄’에 대하여」, 김병국 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172-173쪽.

미의 일생담이 텍스트 전체의 일부로서 특정한 맥락 안에 배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텍스트 상에서 텐동어미가 발화를 시작하도록 계기를 제공한 청춘과부의 울음은 작품 초반에서부터 복선처럼 잠복하고 있다. 아름답게 단장한 채 화전놀이를 떠나는 여인들에 반해 청춘과부는 단출한 차림으로 길을 나서는데, 그녀는 화전놀이에서도 눈물과 콧물로 구지레해진 모습으로 포착된다. 이때 한 부인이 다가가가 근심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을 계기로 시작되는 청춘과부의 하소연은 텍스트에서 두 가지 층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그녀의 울음은 화전놀이의 흥겨움을 방해하고 놀이를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이란 곧 청춘과부가 울음을 그치고 놀이의 현장에 몰입함으로써 다시금 흥겨운 놀이를 재개하는 것이 된다. 한편 청춘과부의 하소연에는 과부로서의 팔자 한탄과 개가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녀의 울음은 과부의 수절과 개가의 선택에 관하여 던져지는 중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청춘과부가 제기한 두 층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가 바로 텐동어미이다. 실상 텐동어미는 초반부 화전놀이를 떠나는 여인들을 묘사하는 서술에서, “건너 집의 텐동어미 옛 한 고리 이고 가서 / 가지가지 가고말고 낸들 어찌 안 가릿가”<sup>19</sup>라며 잠시 포착되기도 한다. 이후 화전놀이의 흥성한 현장에서 ‘멋있게 도 잘도 노는’ 모습으로 그려지던 그녀는, 청춘과부의 하소연을 듣다 ‘씩 나서는’ 형태로 텍스트 전면에 등장한다. 여기에서 텐동어미는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적선 가지 말게”<sup>20</sup>라며 과부가 제기한 개가 문제에 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텐동어미는 나이 열여섯에 장이방 집안으로 시집을 가지만 신랑이 그녀를 뛰다 떨어져 죽음으로써 일 년 만에 과부가 된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기에 양가의 합의 하에 상주 읍내의 이승발의 후처로 들어가게 된다. 부유한 살림에 너그러운 시부모님을 만나지만, 새로운 사또가 도입한 후 시택이 이포(吏逋)를 많이 진 것이 문제가 되어 집안이 몰락해버린다. 친척들에게 빌어먹

---

19 <텐동어미화전가>, 296쪽.

20 <텐동어미화전가>, 301쪽.

으며 지내던 덴동어미 부부는 유랑 끝에 경주의 손군노가 경영하는 여각(旅閣)에서 사환(使喚)일을 하며 돈놀이를 통해 돈을 모으지만, 병술(丙戌)년 괴질로 남편이 죽고 빚을 준 사람들마저 죽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다. 다시금 홀로 남겨진 덴동어미는 빌어먹는 생활을 이어가다가 도부장수 황도령과 만나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살게 된다. 부부는 십여 년간 고된 장사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지만,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황도령이 세상을 떠난다. 이에 덴동어미는 죽을 마음을 먹지만 “홍진비래 하온 후에 고진감래 할 것이니 / 팔자 한 번 다시 고쳐 좋은 바람乙 기다리게”<sup>21</sup>라는 주막집 주인댁의 설득으로 마음을 고쳐 옛장수 조침지를 만나 네 번째 살림을 차리게 된다. 두 사람은 나이 오십에 아들을 낳고 행복한 순간을 누리기도 하지만, 수동별신곳에 사용할 엿을 고던 중 큰 화재가 일어나 조침지는 죽고 아들은 화상을 입어 큰 장애를 가지게 된다. 생의 의지를 잃고 누워있던 덴동어미는 이웃집 여성의 설득에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생을 이어간다.<sup>22</sup> 이후 육십에 이르러 노쇠해진 덴동어미는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며, 옛 집터에서 친척 형님과 재회하는 데에서 그녀의 일생담은 마무리된다.

맥락상 덴동어미의 삶이란 개가가 곧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예증하는 사례로서 제시되는 것이며, 네 번의 상부를 즐기 삼는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노동과 고생의 연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기서사의 화자로서의 덴동어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고통으로 간단히 요약하여 이를 자신의 깨달음으로 곧바로 잊기보다는, 자신이 겪어온 지난한 여정을 하나씩 풀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육십 대에 이른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의 방식보다는, 마치 지금 그 상황을 당면한 듯한 현재형 서술이 두드러진다. 이때 덴동어미가 남편을 잃고 좌절하며 슬퍼하는 순간뿐 아니라, 의지를 다져 당면한 고난을

21 <덴동어미화전가>, 321쪽.

22 덴동어미 생애서사의 후반부를 재구하는 데 있어, 그녀가 40대 중후반에 이미 고향 어귀로 돌아와 조침지와 만나 50세에 아들을 낳았으며, 아들이 두 살 정도 되었을 즈음 화재가 났고, 화재로 인한 조침지의 죽음 이후 그의 생업을 계승하며 살다가 60세 무렵에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논한 김하라의 연구는 큰 참조가 된다. 김하라,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416-418쪽.

헤쳐나가는 순간, 새로운 만남을 통해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순간, 삶의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등도 함께 서술된다. 이렇듯 매 과정마다 느낀 감정이 생생하게 서술됨으로써 텐동어미의 경험을 그녀의 관점에서 좇아 추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서술을 경유함으로써 뒤이어 텐동어미가 전하는 메시지는 교조성보다는 진정성이 강하게 실린다.

텐동어미는 자신의 일생담을 일단락한 뒤 개가를 하였음에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의 사례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며, 개가를 한다는 것이 곧 고생을 덜 하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청춘과부의 개가를 만류한다. 나아가 삶 전부를 당당하게 껴안는 태도를 강조하는바,<sup>23</sup> 이는 텐동어미 자신이 살아온 삶을 온몸으로 겪어냄으로써 지니게 된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텐동어미의 발화가 일단락된 이후, 청춘과부는 ‘황연대각’ 깨달아 텐동어미의 말이 ‘개개움다’고 동의 표하고 봄춘자 노래를 부르며 화전놀이의 흥겨운 현장에 적극 동참한다. 이로써 텐동어미는 청춘과부에 의해 제기된 두 가지 층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자면 텐동어미의 일생담은 한 노년 여성의 굴곡진 인생을 그녀 자신의 입을 빌어 발화하는 형식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녀 자신의 한을 풀어내는 개인적 치유를 넘어 청춘과부를 위로하고 일정한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등 화전놀이의 현장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서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후 텐동어미와 청춘과부를 비롯한 몇 여성들이 신명나는 화전놀이에 함께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고조되며 내년의 화전놀이를 기약하는 데에서 텍스트가 마무리된다.

### 3 텍스트의 결말과 미적 특징

2장에서 살펴보았듯 <변강쇠가>와 <텐동어미화전가>에 포함된 옹녀와 텐동어미의 서사는 여성이 거둬 남편을 잃고 개가하는 인생유전의 서사를 공유하되, 여러

---

23 조혜숙, 「조선후기 시가 속의 여성 인물 형상(1)」, 『국문학연구』 제27호, 국문학회, 2013, 77쪽.

가지 차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살펴보았듯 그 차이란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서술되는가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확인된다. 이를테면 <변강쇠가>에서는 옹녀의 상부와 개가의 경험이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게 단 콩 주워먹듯 하겠다’며 서술자에 의해 간략하게 요약 진술된다.<sup>24</sup> 이에 반해 <텐동어미화전가>에서는 텐동어미의 삶이 그녀 자신의 발화로써 그녀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가운데, 상부의 자세한 곡절과 그녀의 거둬진 개가의 선택이 훨씬 더 맥락화된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 가운데 텐동어미의 감정이 여실하게 표현되는 것은 물론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가 직접인용 방식으로 삽입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의 차이는, 인물의 삶에 관한 서술이 시작되는 대목에서 단적으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변강쇠가>의 서술자가 옹녀의 출생이나 성장배경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그녀의 색태(色態)부터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텐동어미는 이서(吏胥)층 출신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란 유년 시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러한 차이가 각 여성인물의 형상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그 차이란 여성인물의 인생유전 서사가 텍스트 상 어디에 배치되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에 있어서도 발생한다. 여성인물의 서사가 지니는 의미란 내재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 텍스트 안에 배치되는 방식에 의존한다. 그렇기에 텍스트의 결말이란 특히 중요한데, 결말이란 앞서 펼쳐진 서사가 수렴되며 다양한 가능성들이 봉합되는 지점으로서 텍스트 전체의 의미가 구성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말은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반을 재해석하게 만들며 그다지 연관이 없었던 것들 간의 연관성마저도 사후적으로 구성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텍스트의 미적 특질을 논하는 데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급하였듯 <변강쇠가>에서 옹녀의 거둬진 상부와 개가담은 이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에서 서술자에 의해 집약적으로 제시되며, 이후 텍스트에서 주

---

24 정출현은 이를 옹녀의 삶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이라 평하면서, <변강쇠가>의 경우 <텐동어미화전가>처럼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며 이는 판소리 일반의 문법이라고 논하기도 하였다. 정출현, 앞의 글, 195쪽.

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변강쇠와의 만남과 그의 죽음, 그리고 그 지난한 치상의 과정이다. 강쇠의 죽음의 경우, 그가 장승을 훼손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서두 부에서 제시된 남성들의 죽음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옹녀를 중심에 두고 사유한다면, 후반부의 내용 역시 옹녀가 다시금 남편을 잃는 이야기 이되 다만 이를 자세히 풀어 제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즉, <변강쇠가>는 이전에도 반복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반복될 옹녀의 거듭된 개가와 상부 가운데 한 부분을 떼어내어 조명하는 텍스트라고 읽어볼 수 있는 것이다.<sup>25</sup>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앞서 거론하였듯 <변강쇠가>의 문제적인 결말과 관련된다. 옹녀가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쫓겨나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땀득이가 강쇠의 시체를 처리하고 옹녀를 떠나는 데에서 마무리되며 마지막에는 서술자의 논평이 덧붙는다. 구조적으로 볼 때 옹녀는 텍스트 전체에 걸쳐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변강쇠가>의 마지막에 이르러 텍스트는 옹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모두가 죽거나 떠난 뒤 옹녀가 홀로 남겨진다는 점뿐이다.

실상 <변강쇠가>에서 모든 존재들이 달라붙어버리는 문제적 장면, 즉 강쇠를 포함한 여덟 구의 시체들이 땀득이와 각설이패에게 달라붙고, 이어서 움생원과 사당패, 웅좌수까지 달라붙어 ‘마을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과 외부의 유랑민들이 모두 함께 붙어있게’ 되는 장면<sup>26</sup>에서조차 옹녀는 그들과 함께 붙어있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후 한 데 붙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굶거리와 닳두리를 통해 일단 떨어져 나오자, 이들은 “繼隊에게 致賀하고 땀득이 각설이께 各各 下直”<sup>27</sup>하고 떠난다. 이어서 땀득이의 애걸로써 각설이패의 등에서 시체를 떼어낸 뒤에는,

25 위의 글, 같은 쪽; 신경남, 「<변강쇠가>의 구조와 애정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18호, 한국고전여성학회, 2009, 221쪽.

26 신호림은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이들이 변강쇠와 중, 초라니, 풍각쟁이 패 등의 시체, 그 시체들을 옮기던 땀득이와 각설이패 등의 유랑민과 붙어버리는 장면에 관하여, “유일하게 마을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과 외부의 유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붙어있는 장면”이라면서, 기괴스러운 방식으로 가까스로 실현되는 ‘함께’의 장면임을 지적한 바 있다. 신호림 앞의 글, 277쪽. 그러나 바가지를 들고 먹을 것을 얻으러 동네로 향한 옹녀는 그들과 함께 붙어있지 않다.

27 <변강쇠가>, 615쪽.

“각설이 세 동무는 여섯 송장 물어 주고 下直하고”<sup>28</sup> 떠난다. 마지막까지도 뎃득이의 등에 붙은 강쇠와 초라니의 시체가 떨어지지 않자, 뎃득이는 자신의 등에 붙은 시체들을 동강내고 갈아내어 처리한 뒤 옹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난다.

즉,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마을 공동체로, 각설이패는 자신들만의 유랑민 공동체로, 뎃득이는 자신이 떠난 가족 공동체로 복귀하지만, 옹녀의 경우만은 ‘돌아갈 곳’이 부재한 채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적 경계를 무화시키며 다양한 존재들이 엉겨 붙는 장면에서조차 외따로 존재하던 옹녀가, 어떠한 관계망도 형성하지 못하고 어떠한 공동체에도 포용되지 못한 채 텍스트가 마무리됨을 의미한다. 강쇠의 시체가 충분히 해원되지 못한 채 분질러지고 갈려버리는 것만큼이나 옹녀가 다시금 홀로 남겨진 채 그녀의 귀추에 관한 어떠한 전망도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 텍스트 특유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데 핵심적이다.<sup>29</sup>

훨씬 갈아버린 후에 女人에게 下直하여, “風流男子 가리어서 百年借老하

28 <변강쇠가>, 619쪽.

29 기왕에 <변강쇠가>가 판소리로 전승되지 못하였던 까닭에 관하여 김종철은 「19세기 판소리와 <변강쇠가>」에서 그 결말이 반민중적이어서 실현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으나, 추후 「<변강쇠가>와 기괴미」에서는 갈등의 미해결이야말로 특정한 미적 효과를 의도한 것일 수 있다면서 이를 기괴미로 평가하고 기왕의 견해를 수정하였다. 또한 <변강쇠가> 외에도 창이 전승되지 않는 실창 판소리들을 검토한 위에서, 「창이 전승되지 않는 판소리의 종합적 연구」를 통해 창을 잃은 7가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논문들은 모두 김종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6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제출된 논의들 또한 김종철이 마련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겠는데, 변강쇠 혹은 옹녀와 같은 인물형상이 향유층의 기대치에 불응한다거나, <변강쇠가>와 같은 실전 판소리들이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논의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김승호, 「변강쇠가에 나타난 反烈女담론 성향-治喪화소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52호, 국어국문학회, 2009; 손태도, 「전통사회 화극(話劇), 재담소리, 실창판소리에 대한 시각」, 『판소리연구』 제39호, 판소리학회, 2015; 서유석, 「판소리에서의 도덕적 규범과 윤리적 선택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56호, 한국구비문학회, 2020. 본고는 김종철의 견해를 계승하되, 묘연한 옹녀의 행방이 남기는 미해결의 감각에 관한 논의를 심화해보고자 한다.



게 하오. 나는 故鄉 돌아가서 同我婦子 지낼 테오.” 떨뜨리고 돌아가니,  
 改過遭善 이 아닌가. 越나라 亡한 후에 西施가 消息 없고, 董卓이 죽은 후  
에 貂蟬이 간 데 없다. 이 世上 誤入客이 迷魂津을 모르고서 冶容誨淫 粉黛  
 窟에 幾人到此誤平生고. 이 辭說 들었으면 懲戒가 될 듯하니 座上에 모인  
 손님, 老人은 百年享壽, 少年은 青春不老, 壽富貴多男子에 聖歲太平하옵소  
 서.<sup>30</sup>

이러한 견지에서 뎃득이의 귀향을 개과천선이라고 평한 뒤, 서술자가 서시(西施)와 초선(貂蟬)을 거론한다는 점은 주목된다. 실상 <변강쇠가>의 도입부에서 웅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가운데 서시와 포사(褒姒)라도 따를 수 없다는 서술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미에서 다시금 경국지색(傾國之色)의 미녀들이 거론되는 것은 구성적으로 수미상관의 일종일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 논평은 이른바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바꾼 미녀들을 환기하며 여성의 아름다움을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해당 대목 이후로 이어지는 여색에 대한 경계의 논평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조용하고 있다. 다만 서시와 초선을 각각 월나라의 패망과 동탁의 죽음과 직결시키는 형식을 고려한다면, 앞선 2장에서 살펴본 뎃득이의 발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간 비극적 사건의 책임이 다시금 웅녀에게로 귀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시의 ‘소식이 없고’, 초선이 ‘간 데 없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면, 이는 웅녀의 행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끝맺는 <변강쇠가>의 결말에 관한 일종의 정당화로서 구실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말이 인상적인 까닭은 무수하게 가능한 여타의 결말들을 배제하고 선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변강쇠가>는 어떠한 결말들을 배제하고 있는가? 우선적으로는 강쇠의 시체 처리 후 웅녀가 강쇠의 유언에 따라 자결하거나 혹은 수절하는 등 열녀(烈女)가 되는 결말을 배제하고 있다. 치상 과정에서 웅녀가 표방하듯, 그녀가 강쇠의 치상 후 정말로 수절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정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뎃득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개과천선’으로 분명하게 의미

30 <변강쇠가>, 619쪽.

화하는 것과는 달리, 옹녀에 관해서는 현재의 결말보다 분명하고 교훈적인 결말이 얼마든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변강쇠가>의 결말은 덩득이가 옹녀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 즉 훌륭한 남성을 만나 평생 함께하라는 인사가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옹녀가 다른 남성과 백년해로하는지, 혹 다른 남성(들)과의 결연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시금 그(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이어지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옹녀의 삶에 관하여 확실한 전망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온전한 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미완의 감각, 즉, 떨어지지 않는 시체를 물리적으로 갈아버린 것이 곧 강쇠의 저주까지 사라지게 만든 것인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로써 <변강쇠가>의 결말은, 텍스트가 ‘끝’에 이르렀음에도 확실한 ‘종결’의 감각을 전해주지 않는다.<sup>31</sup>

텍스트가 ‘끝’에 도달함에도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종결’은 끝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강쇠가>의 결말은 열린 결말에 가깝다.<sup>32</sup> 텍스트 전반부에서 못 남성들의 죽음의 원흉처럼 서술되던 옹녀가 개과(改過)하여 새 사람이 되거나 혹은 죽지도 않은 채 텍스트가 끝나버린다는 점은, 그녀가 향하게 될 장소에서 다시금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을 남기기도 한다. 이렇듯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서술자의 논평으로조차 봉합될 수 없는 것이다. 판소리 문학을 포함하여 한국고전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행복한 결말’이 거론된다는 점<sup>33</sup>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결말은 매우 문제적

---

31 관련하여 박동진 명창이 1971년 창작 판소리를 통해 옹녀를 변강쇠와 함께 죽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들을 합장(合葬)하는 것으로 변개하였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운정, 「박동진 창본 <변강쇠가> 연구」, 『판소리연구』 제25호, 판소리학회, 2008. 이는 본래의 <변강쇠가>가 불러일으키는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고 수용자들의 기대에 보다 부합하게끔 결말을 변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2 텍스트의 ‘끝’과 ‘종결’은 다르다. 텍스트의 끝에 이르러서 기대가 실현되고 질문에 대해 답해진다면 종결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종결이 반드시 텍스트의 끝에 위치할 필요는 없으며 종결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15-131쪽.

33 이 문제를 다루는 본격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제3호,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인 것으로 읽힌다. 고전서사의 행복한 결말이 원억(冤抑)한 일을 없애고 그것이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는 수용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임<sup>34</sup>을 고려하면, 원억함을 해소하기는커녕 갈아버리고(강쇠) 문제의 원인인 양 지목하던 인물의 행방은 묘연하게 처리해버리는(옹녀) 결말부는 ‘풀지 못한 문제들’을 남겨둠으로써 수용자들의 기대를 적극 배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강쇠가>의 결말은,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결의 감각을 ‘성취’해낸 결과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특히 <변강쇠가>는 19세기 전염병의 유행 및 시체들의 처리에 관한 기억, 공동체 경계 밖의 유랑민에 대한 배척의 기억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sup>35</sup> 미결의 감각을 선사하는 결말은 그러한 기억을 묻어둔 자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옹녀의 행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은 채 텍스트를 끝맺는 방식은, 공동체 밖에 홀로 남겨진 옹녀가 언제든 그 경계의 안팎을 오갈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텍스트 내적으로 확보하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을 남긴다. 불편한 기억을 상상적으로 극복하여 수용자들에게 치유와 해결의 감각을 선사하는 서사들과는 정반대로, <변강쇠가>는 그러한 만족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기억을 불쾌하게 자극하는 방향을 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강쇠가>는 전염병에 대한 기억이나 유랑민에 대한 공동체의 적대와 차별의 기억을 단지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기억을 환기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변강쇠가>의 결말 처리 방식은, 메시지가 아닌 형식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텐동어미화전가>에서 그려지는 텐동어미의 인생유전은, 앞선 2장에

---

1978; 신재홍, 「숙향, 심청, 흥부의 덕목들」, 『고전문학과 교육』 제19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이종필,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일 양상」, 『고전과 해석』 제10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최어진,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뜻밖의 결말’의 양상과 의미-〈토끼전〉과 〈옹고집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42호, 국문학회, 2020.

34 서대석, 앞의 글, 242쪽.

35 대표적으로 이주영, 앞의 글, 2008; 서유석, 앞의 글, 2018 참고.

서 논하였듯 청춘과부가 제기한 문제에 응답하며 화전놀이 현장의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맥락을 지닌 채 배치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설파하고자 하는 것은 개가의 여부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중요하다는 자신의 깨달음이다. 다만 텐동어미는 이를 교조적으로 관철시키기보다는,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굴곡진 인생의 고락(苦樂)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인생유전의 서사에서는 상승과 하락의 구조, 즉 새로운 만남을 계기 삼아 생의 의지를 다잡고 삶을 이어나가다가도 상대의 죽음으로 삶에 대한 기대를 잃은 채 감정적 고통을 겪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때 텐동어미가 거듭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자신의 강인한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그녀가 결연한 남성들 외에도, 주막집 주인댁이나 이웃집 여인, 고향의 친척 등 텐동어미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그녀를 돌보고 생의 의지를 북돋아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어 가능해진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 지점이야말로 웅녀와 텐동어미의 서사에서 핵심적 차이가 발생하는 기점인 듯 보인다. 기왕의 논의들에서는 웅녀와 텐동어미를 대별시키며 텐동어미를 ‘비극을 넘어서는’ ‘독립적’ 여성이라고 평하였으나, 실상 텐동어미의 서사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것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성’이다. 그리고 이때의 관계성이란 여성이 누구와 결연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그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텐동어미의 서사에는 결정적 순간마다 삶의 희망을 전하고 삶의 책임을 일깨우는 조력자형 여성인물들이 주요하게 기입되어 있으며, 이렇듯 어려움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관계성이란 텐동어미 자신이 실천하는 바이기도 하다.<sup>36</sup> <텐동어미화전가>의 특이한 구성은 그 자체로,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의 한탄을 무시하지 않고 이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성이란 그녀가 고향 공동체와 다시금 연결되는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변강쇠가>가 결말에서까지 웅녀의 향방을 제시하지 않는 데 반해, <텐동어미화전가>에서는 텐동어미의 서사 내부에서 그녀가 고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36 관련하여 <텐동어미화전가>의 액자 안팎으로 나타나는 여성연대의 다양한 층위를 살핀 논의로는 박혜숙, 앞의 글, 2005 참고.

그러진다. 네 번째 남편이 죽고 텐동어미가 고향인 순흥으로 향하기까지는 약간  
 의 시간적 터울이 존재하는데, 그 시기 동안 텐동어미는 남편의 생업을 계승하며  
 삶을 영위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다.<sup>37</sup> 다만 나이 육십에 이른 텐동어미는 몸이  
 점차 쇠약해져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sup>38</sup>는 판단 하에 텐동이  
 를 업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녀각은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걸.  
남이라도 욕할 게요 친정일가들 반가할까.  
잔디밭에 물계 앉아 한바탕 실컷 우다 가니  
모르는 안노신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슬이 우나? (...)  
 그러나 저러나 들어가세 손목 잡고 들어가니  
 청삽살이 정정 짓어 난 모른다고 소리치고  
 큰 대문 안의 계우 한 쌍 계욱계욱 달라드네.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신과 한데 자며  
 이전 이야기 대강하고 신명타령 다 못할레.<sup>39</sup>

근 오십년 만에 돌아와 모든 것이 변해버린 고향에 이른 텐동어미는 쭉대밭이 된  
 집터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수절하지 못한 자신을 남들이 욕할 것이며 친

37 김하라, 앞의 글, 418쪽.

38 <텐동어미화전가>, 327쪽. 이때 텍스트 초반부에 텐동어미가 옛고리를 이고 가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텐동어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옛을 고는 일을 생업 삼아 살아가고 있으리라 추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내 나이 육십이라 늙어지니 더욱 슬의/ 자식이나 성했으면 저나 믿고 사지마난/ 나은 점점 많아가니 몸은 점점 늙어가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 텐동이를 뒤틀어업고 본 고향乙 돌아오니”의 맥락을 고려할 때, 텐동어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 노쇠해진 그녀가 홀로 텐동이를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일이 힘에 부치게 되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9 <텐동어미화전가>, 329-330쪽.

정일가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슬피 운다. 특히 자신이 첫 번째 남편을 잃었을 때 함께 죽었거나 수절(守節)하였다면 부끄럽고 무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수절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세 차례나 개가한 자신이 환대받을 수 없는 오염된 존재라는 자의식과 더불어, 자신이 고향은 물론 가족 공동체에서조차 배제되리라는 비판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친척 형님으로 밝혀지는 한 할머니와의 만남을 계기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신명타령을 하는 데에서 텐동어미의 일생담은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보자면 텐동어미는 친척과의 만남 이후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그녀가 고향 공동체의 가장 안쪽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까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나, 최소한 그녀가 공동체의 경계지대에 머무르며 공동체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고는 볼 수 있을 듯하다. 문중이나 촌락 내 며느리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 여성들이 함께 떠나는 ‘축제 공동체’<sup>41</sup>로서의 화전놀이에서 텐동어미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설정 또한 이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셈이다.

이렇듯 텐동어미가 고향에 돌아와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은 텐동어미의 발화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텐동어미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는, 그 메시지가 어떠한 맥락에서 발화되고 있으며 텐동어미가 어떠한 조건 위에서 이를 발화하는가의 문제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텐동어미화전자>에서 텐동어미의 발화는 형식적으로는 청춘과부를 청자 삼아 일대일로 발화되는 듯하나, 실상은 여러 여성들이 모이는 ‘공적’인 놀이현장의 맥락과 긴밀히 결부되어 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거듭된 개가 전력을 지닌 자신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위축되어있던 과거의 텐동어미가, 그러한 불안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고향에 발붙일 수 있게 되었다는 행적과도 관련된다. 그녀의 삶의 조건이 고향 공동체의 관계망과 연결되고 그녀가 이에 관한 일정한 귀속의식을 지니는 한, 텐동어미의 발화란 공동체에서의 그녀의 위치와 그녀에게 기대되는 바, 그녀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바

40 박혜숙, 앞의 글, 2005, 132쪽.

41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제39호, 우리어문학회, 2011, 171쪽.

등을 조율하는 수행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즉, 화전놀이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이란 곧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과 긴밀히 연동되는 것이자, 이를 유비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이와 같은 덴동어미의 발화를 경유하여 도달하는 <덴동어미화전가>의 결말 부분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논한 <변강쇠가>가 확실한 종결의 감각을 주지 않은 채 마무리됨으로써 불편감을 자극하는 것과 달리, <덴동어미화전가>의 결말부에 이르러서는 고민의 당사자이던 청춘과부가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된 듯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화전놀이 현장은 더욱 흥겨운 화합의 장으로서 거듭나게 된다. 이때 청춘과부가 부르는 봄 춘자 노래는 그녀가 제기했던 문제가 덴동어미의 인생서사를 경유하며 해소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한편, 화전놀이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한 명씩 호명함으로써<sup>42</sup>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 현장의 조화로움을 강조한다. 봄춘자 노래에 이어 꽃화자 타령까지 경유하며 고조되어가는 흥겨움은, 텍스트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듯한 만족스러운 종결의 감각을 선사한다.

그런데 이렇듯 신명나는 화전놀이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존재가 덴동어미의 발화 안에 기입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그들은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나 덴동어미에 의해 언급되는 이들, 즉 개가한 뒤 죽거나 쫓겨나거나 장애를 가지게 된 화령댁, 장임댁, 안동댁, 월동댁, 단양이네 등의 존재다. 청춘과부의 봄춘자 노래에서 호명되는 여인들과는 달리, 반면교사처럼 거론되는 이 여인들은 놀이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sup>43</sup> 이는

---

42 청춘과부의 봄 춘자 노래에서는 덴동어미 외에도 흥정골댁, 골내댁, 새내댁, 도화동댁, 행정댁, 도지미댁, 희여골댁, 연동댁, 오양골댁, 흥다리댁, 안동댁, 소리실댁, 늦점댁, 청다리댁, 남동댁, 영춘댁, 질막댁, 우수골댁, 단양댁, 청풍댁, 덕고개댁, 풍기댁 등의 태호가 하나씩 호명된다.

43 덴동어미의 발화에서는 화령댁, 장임댁, 안동댁, 월동댁, 단양이네 등이 언급된다. 이때 위에 언급된 봄 춘자 노래에서 호명된 태호들과 덴동어미의 발화에서 언급된 태호들 가운데 ‘안동댁’과 ‘단양댁’(단양이네)이 겹치는듯하지만, 이들을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려울듯하다. 실상 태호는 친정 동네의 지명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기에 반복될 수 있기도 하거니와, 안동댁은 재가 후 남편의 폭력으로 골병이 들어 죽고, 단양이네는 본처의 시샘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덴동어미화전가〉의 결미를 장식하는 흥겨운 화전놀이가 경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때의 경계란 개가 후 불행을 맞이한 여인들을 구성적 외부로 동원하는 가운데 폐쇄적으로 그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그러나 경계가 없지 않되 그 경계란 것이 유동적이라는 사실까지 내포한다는 점이야말로 〈덴동어미화전가〉의 미적 특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지 않은가 한다. 이때의 경계란 신명나는 화전놀이 판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 화전놀이로 표상되는 공동체의 경계이기도 하다. 한 부인이 눈물을 흘리는 청춘과부에게 그 사정을 ‘묻고’ 청춘과부의 발화에 덴동어미가 ‘응답’하는 행위, 한 할머니가 덴동어미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곁에 ‘앉아’ 사정을 ‘묻는’ 행위 등은 모두 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종인 것이다. 이로 인해 화전놀이에서 소외되어 있던 청춘과부는 봄춘자 노래를 부르며 놀이판의 가운데로 들어가며, 고향에 돌아온 직후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던 덴동어미는 다시금 공동체의 일부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청춘과부에 의해 ‘늙어 고향에 돌아와 봄을 맞이하였다’고 노래되는 덴동어미는 존재 자체로 경계의 유동성을 체현하고 있는 셈이다.

#### 4 나가며

본 연구는 〈변강쇠가〉의 옹녀와 〈덴동어미화전가〉의 덴동어미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심화한다는 목표 하에, 두 여성인물의 서사에서 발견되는 차이와 공통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는 두 텍스트에서 상부와 개가의 서사가 어떻게 서술되며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변강쇠가〉에서는 강쇠의 죽음으로 인한 옹녀의 상부 경험을 자세하게 서술해나가기보다는 강쇠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불거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옹녀에의 초점화는 약화된다. 반면 〈덴동어미화전가〉에 포함된 덴동어미의 서사는 그녀 자신의 관점에 입각하여 서술됨으로써 그 인생유전을 그녀의 감정을 좇아 추체험하게끔 이끌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부와 개가의 서사가 전체 텍스트 안에 어떻게 배치되며 맥락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변강쇠가〉가 이전에도 반복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반복될 옹녀



의 거듭된 개가와 상부 가운데 강쇠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한 부분만을 떼어내어 조명한다면, <텐동어미화전가>는 화전놀이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맥락 안에 텐동어미의 상부와 개가의 서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어 각 텍스트의 결말에서 여성인물의 서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변강쇠가>의 경우 결말에서 옹녀의 행방을 묘연하게 처리함으로써 해당 결말 이후 옹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주지 않는데, 이는 서술자의 논평으로조차 충분히 봉합되지 않는 불편감을 가중시킨다. 이와 같은 미결의 감각은 이 텍스트가 실창되어버린 핵심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 텍스트의 문제적 성격을 담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듯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감각을 지연시키는 <변강쇠가>의 결말 처리 방식은, 메시지가 아닌 형식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라고 읽어볼 수도 있다. 반면 <텐동어미화전가>에서는 텐동어미의 발화를 통해 화전놀이 현장에서 발생한 두 가지 층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화전놀이의 흥겨움이 고조되는 가운데 텍스트가 마무리된다. <변강쇠가>와는 달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한 종결의 감각은 텐동어미가 공동체의 관계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 거듭된 상부와 개가를 경험한, 즉 공동체의 규범적 윤리와 어긋나는 행적을 지니는 여성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편입되는가의 여부는 각 텍스트의 결말이 남기는 ‘미결’과 ‘종결’의 감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셈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고는 두 인물의 서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계 지으며 조명해볼 수 있었다. 상부하고 개가하는 여성인물의 서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실상 <변강쇠가>와 <텐동어미화전가> 두 텍스트 간에는 차이점이 보다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여성이 마을 공동체에서 배척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텍스트와, 공동체의 경계를 구성하는 움직임들을 그려내는 텍스트는 상이한 지향을 지니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하나의 ‘전형’으로 간주되어온 삶의 이야기가 문학을 통해 얼마나 다각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가를 예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특히 여성인물과 공동체의 관계를 축으로 삼는다면, 두 인물의 서사에서 발견되는 차이란 이들이 처한 조건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각 텍스트의

미적 특질과도 연동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변강쇠가>와 <텐동어미화전가>는 공동체의 구성적 성격과 그 경계의 유동성을 각기 다른 각도로 사유하게끔 추동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공동체의 안과 밖, 그 경계의 폐쇄성과 유동성 사이를 오가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는 함께 읽을 때 그 의미망이 보다 확장된다고도 생각된다. <변강쇠가>와 <텐동어미화전가>가 오늘날 고전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면 이는 두 텍스트들이 다루는 문제가 여전히 현재적이며, 이에 관하여 이 텍스트들이 유의미한 사유의 거점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텍스트들의 동시대성에 관해서는 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변강쇠歌(星斗本B)>(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全)』 권8, 보성문화사, 1978, 532-619쪽)

<주해註解 텐동어미화전가>(박혜숙 교주,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289-348쪽)

### 단행본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13-134쪽.

### 논문

강윤정, 「박동진 창본 <변강쇠가> 연구」, 『판소리연구』 제25호, 판소리학회, 2008, 89-109쪽.

강진옥, 「<변강쇠가>연구 2-여성인물의 ‘쫓겨남’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13호, 이화어문학회, 1993, 197-217쪽.

고정희, 「‘더 늙은 여성’의 치유-<텐동어미화전가>와 브루스터플레이스의 여자들의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4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61-96쪽.

- 고혜경, 「“넌동어미 화전가”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5호, 한국언어문학회, 1995, 177-192쪽.
- 김승호, 「변강쇠가에 나타난 反 烈女담론 성향-治喪화소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52호, 국어국문학회, 2009, 277-306쪽.
- 김은희,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본 <넌동어미 화전가>-치유의 과정에 주목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9호,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33-69쪽.
- 김종철, 「운명의 얼굴과 신명 <넌동어미 화전가>」,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추모 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763-773쪽.
- \_\_\_\_\_,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6.
- 김지혜, 「<변강쇠가> 속 하층 여성에 대한 낙인의 폭력성과 저항의 가능성 읽기-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67호, 겨레어문학회, 2021, 69-98쪽.
- 김창현, 「「변강쇠가」, 텃득이의 인물형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제38호, 국제어문학회, 2006, 225-253쪽.
- 김하라, 「<넌동어미 화전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405-440쪽.
- 박경주,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19세기 하층 여성의 실상과 의미: <변강쇠가> <미얄과장> <넌동어미 화전가>의 비교를 통해」, 『국어교육』 제104호, 한국어교육학회, 2001, 219-238쪽.
- \_\_\_\_\_, 「화전가의 의사소통 방식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0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27-52쪽.
- 박상영, 「<넌동어미 화전가>의 중층적 담론 특성에 관한 一考」, 『한민족어문학』 제76호, 한민족어문학회, 2017, 333-380쪽.
- 박성지, 「<넌동어미 화전가>에 나타난 욕망의 시간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09-335쪽.
- 박정애, 「스토리텔링 치료의 관점에서 본 <넌동어미 화전가>와 그 현대적 수용 사례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5-35쪽.

- 박혜숙,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 『인제논총』 제9호, 인제대학교, 1992, 383-400쪽.
- \_\_\_\_\_,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제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23-145쪽.
-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제3호,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78, 233-242쪽.
-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적 이미지와 그 사회적 함의」, 『판소리연구』 제16호, 판소리학회, 2003, 29-59쪽.
- \_\_\_\_\_, 「공포와 혐오, 환대의 가능성으로 읽어보는 유랑민 서사: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60호, 우리문화회, 2018, 7-31쪽.
- \_\_\_\_\_, 「판소리에서의 도덕적 규범과 윤리적 선택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56호, 한국구비문학회, 2020, 35-64쪽.
- 서주연, 「<덴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의미」, 『도시인문학연구』 제5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3, 97-123쪽.
- 서철원, 「온전하지 못한 몸과 마주보기: <도천수관음가>와 <처용가>의 질병, <노처녀가>의 장애, <덴동어미화전가>의 사고」, 『국문학연구』 제43호, 국문학회, 2021, 37-68쪽.
- 손태도, 「전통사회 화극(話劇), 재담소리, 실창판소리에 대한 시각」, 『판소리연구』 제39호, 판소리학회, 2015, 143-172쪽.
- 양태순, 「규방가사 여성성으로서의 ‘한탄’에 대하여」, 김병국 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163-219쪽.
- 신경남, 「<변강쇠가>의 구조와 애정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07-240쪽.
- 신동원, 「변강쇠가로 읽는 성·병·주검의 문화사」, 『역사비평』 제67호, 역사비평사, 2004, 307-332쪽.
- 신재홍, 「숙향, 심청, 흥부의 덕목들」, 『고전문학과 교육』 제19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205-232쪽.
- 신호림, 「<변강쇠가>에 나타난 욕망과 규범의 긴장과 그 처리 방식」, 『판소리연구』 제45호, 판소리학회, 2018, 265-291쪽.

- \_\_\_\_\_, 「공동체와 폭력: 코로나 시대 <변강쇠가> 읽기」, 『관소리연구』 제53호, 관소리학회, 2022, 265-292쪽.
- 오성준, 「관소리 사설에 나타난 질병에 대한 기억과 반응: 19세기 콜레라의 유행과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43호, 국문학회, 2021, 99-131쪽.
- 이종필,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일 양상」, 『고전과 해석』 제10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79-111쪽.
- \_\_\_\_\_, 「조선의 포스트 콜레라와 <변강쇠가>」, 『어문학』 제154호, 한국어문학회, 2021, 123-145쪽.
-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강쇠 형상과 그에 대한 적대의 의미」, 『어문논집』 제58호, 민족어문학회, 2008, 5-33쪽.
- \_\_\_\_\_, 「‘기괴하고 낯선 몸’으로 <변강쇠가> 읽기」, 『고전과 해석』 제6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47-75쪽.
- \_\_\_\_\_, 「조선후기 문학의 역병(疫病) 재난과 대응 양상」, 『열상고전연구』 제77호, 열상고전연구회, 2022, 261-296쪽.
-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제39호, 우리어문학회, 2011, 147-179쪽.
- 정무룡, 「<덴동어미 화전가>의 형상화 방식과 함의」, 『한민족어문학』 제52호, 한민족어문학회, 2008, 259-304쪽.
- 정천구, 「<변강쇠가>의 갈등 양상과 의미 재해석」, 『語文學』 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463-482쪽.
- 정출현, 「관소리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삶과 그 문학적 형상-<변강쇠가>의 여주인공 ‘옹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9호, 한국구비문학회, 1999, 181-205쪽.
-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제36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253-287쪽.
- 정흥모, 「<덴동어미 화전가>의 세계인식과 조선후기 몰락 하층민의 한 양상」, 『어문논집』 제30호, 민족어문학회, 1991, 81-100쪽.
- 조해숙, 「조선후기 시가 속의 여성 인물 형상(1)」, 『국문학연구』 제27호, 국문학

회, 2013, 55-85쪽.

최동현, 「문화적 갈등으로 본 『변강쇠가』」, 『국어문학』 제61호, 국어문학회, 2016, 103-130쪽.

최어진,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뜻밖의 결말’의 양상과 의미-〈토끼전〉과 〈옹고집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42호, 국문학회, 2020, 181-211쪽.

최은숙, 「〈덴둥어미화전가〉의 연구성과 및 현대적 의미」, 『국학연구론총』 제18호, 태민국학연구원, 2016, 127-154쪽.

홍해월·이명현, 「〈변강쇠가〉와 웹툰 〈마녀〉에 나타난 공동체(共同體)와 타자(他者)」, 『우리문학연구』 제54호, 우리문학회, 2017, 85-113쪽.

## Abstract

The Narrative of Repeating Bereavement and Remarriage  
-Revisiting *Byeongangsoega* and *Dendongeomiwhajeonga*

Jeon Gihwa

*Byeongangsoega* and *Dendongeomiwhajeonga* are juxtaposed due to their similar narrative involving a female character who experiences the repeated loss of her husband and subsequent involvement with a new partner. This study focuses on the narratives of Ongnyeo in *Byeongangsoega* and Dendong-eomi in *Dendongeomiwhajeonga*, and compares them from a new angle, moving beyond hierarchical evaluations of them and considering more various dimensions. First, an examination of the women's relationships with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shows that the disparities between Ongnyeo and Dendong-eomi do not stem solely from their respective "inclinations" but are closely tied to the "conditions" that contextualize them. Their conditions are intricately intertwined with the aesthetics of the text as well: the aesthetics of discomfort in *Byeongangsoega* and the aesthetics of harmony in *Dendongeomiwhajeonga*. It is because these aesthetics are closely linked to whether a female character who experiences the repeated loss of her husband and then remarries—in other words, one who deviates from the social norms of the late Joseon period—is excluded from the community or not. Building upon this analysis, this study seeks to reposition *Byeongangsoega* and *Dendongeomiwhajeonga* as significant sites for contemplating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 boundary of the community.

Key words: *Byeongangsoega*, *Dendongeomiwhajeonga*, Ongnyeo, Dendong-eomi, bereavement, remarriage, community, harmony, discomfort, ending

논문제출 / 2023. 07. 15.

논문접수 / 2023. 07. 23.

게재확정 / 2023. 08. 04.